

민주당 '호남 텃밭 탈환' 총력전 "당선 후 입당 절대 없다" 선긋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합동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공동 정책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D-6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일 광주를 찾아 오는 10~11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호남 텃밭' 탈환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4·15 총선 막바지에 광주·전남에서 불고 있는 야권 후보들의 '당선 후 민주당 입당'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지시해 결집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5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은 이날 광주시 서구 민주당광주시당 사무실에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열고, 나주혁신도시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1당이 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에 국회의장도 빼앗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개혁도 물"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서 민주·시민당 대책위 "1당 빼앗기면 개혁 물거품"

거품이 된다"며 "사전투표부터 본투표에 이르기까지 지역구는 1번 민주당, 비례대표는 5번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광주·전남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어 '민주당 총선 승리-문재인 정부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판세 굳히기에 힘을 보탤다.

또 이 대표는 민생당과 무소속 일부 후보들의 '민주당 마케팅'에 대한 민주당의 '입당 불가'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는 잘못된 정치 문화와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우리당을 탈당해 다른 당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우리당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선거 막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민생당·무소속 일부 후보들이 오차 범위 안에서 1·2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들 야권 후보들의 '당선 후 민주당 입당' 주장을 민주당이 서둘러 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이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 광주·전남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신인급 후보들이 표표를 다지고 있는 반면, 민생당과 무소속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직력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일부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입당을 발표한 무소속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입당 불가 방침은 야권이 내건 '인물론, 중진 국회의원 문제인 정부 역할론' 주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의 최종 판단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총선 지역구 253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은 '130석+α(알파)', 미래통합당은 '110~1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어 '집안 단속'에 나선 '민주당의 선물'도 통이 켜졌다. 민주당과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인공지능 및 자동차, 문화, 에너지산업의 획기적 발전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의 빛가람혁신도시 유치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놓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치킨게임' 치닫는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등 주주들 주총에서 "광주시가 노동계 압박하라" 주문 노동계 협약 파기 속 대타협 아닌 "네타" 공방... 우려 목소리

대한민국 첫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태어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와 사업주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등 올 스톱워킹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현대차를 주축으로 한 투자 주주들이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해 사업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계를 다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주총회에서 되레 노동계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8일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4시간여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박광태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와 1대 주주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 2대 주주 현대차 등이 모여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총 37개 주주사 중 26개 주주사 대표가 참석한 이날 긴급 주총은 지난 2일 한국노동총연맹과 광주지역본부의 협약파기와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에 따른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주총에선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에 대한 성토와 함께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책임과 향후 대책을 묻는 질타들만 쏟아졌다.

특히 이날 주총에선 2대 주주인 현대차와 관련 부품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광주시 등에게 노동계를 압박하는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1대 주주인 광주시는 "일단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2대 주주인 현대차를 따르는 일부 주주사(부품사 8곳)들은 "차라리 사업을 접자"며 고성까지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은 장시간 격론 끝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를 외면하는

노동계의 협약파기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과 함께 '오는 4월 29일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이행 및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 여부 등의 조치를 주주총회를 소집해 결정한다'는 결의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4월 29일까지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 포기 등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날 주총에서 노동계와의 상생의견은커녕 사업포기 등의 말까지 오간 데 대해 격양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본 상생 정신마저 무시하는 주주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민주당이 직접 나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날 9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는 올해 첫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긴급 주총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나주로 오나

광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전남에 구축" 약속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가 전남 나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공모에 참여한 전남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4·15 지방선거를 앞두고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광주를 찾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이후 "충북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부분의 발언이 생략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집권당 대표의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남에 무기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적어도 충북과 공정한 물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전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과 '한전공대와 시너지'라는 명분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호남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와 e-모빌리티 (미래

자동차)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과 관련해서 "(이전을 위한 관련) 용역이 거의 끝났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 총선 이후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해찬 민주당 호남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전남의 최대 현안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과 'e모빌리티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전남에 구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사업체 청신호가 켜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선 7기 전남도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히고 이를 추진해왔다.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지자체 유치의향서 접수를 받아 평가를 거쳐 다음달 7일 대상지를 선정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중3·고3 '온라인 개학'

오늘부터 원격수업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초·중·고교가 사상 초유의 단계별 온라인 개학을 9일부터 시작한다. <관련기사 6면>

8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스마트 기기 1대를 확보해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정하고 학교와 관련 기관이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끌어 모으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수량이 부족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으로 수업의 질 하락과 평가과정에서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참여할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대면 수업보다 긴장감과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학력 편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격 수업에 따른 출결 확인과 평가 방법 역시 민감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실습과 훈련이 수업의 주가 되는 직업계와 예체능계 학교들은 실습 등 관련 콘텐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BRO&T!PS

대충발라도 완전촉촉

브로앤티프스 네버드라이 올인원

NEVER DRY
ALL IN ONE



• 전국 아리따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브로앤티프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